

제12회 영랑문학제

제1부 개막식

제2부 제12회 영랑시문학상 시상식(공동수상)

제3부 영랑시문학의 밤

제4부 행운권 추첨

개막행사 2015. 5.1 PM 5:00

2015. 5.1(금) - 2(토)

영랑생가 앞 특설무대 · 시문학파기념관 · 영랑생가

주최 |  강진군

주관 | 영랑기념사업회 · 시와시학



제1부 : 개막식

사회 : 김현서

주요인사 소개 사회자
국기에 대한 경례 사회자
개막선언 김창한 영랑기념사업회장

인사말 김창한 영랑기념사업회장
축 사 강진원 강진군수
축 사 김상윤 군의회의장
축 사 황주홍 국회의원

제2부 : 제12회 영랑 시문학상 시상식

[본상 故 범대순 | 故 김종철]

시 상 (범대순) 김창한 영랑기념사업회장
시 상 (김종철) 강진원 강진군수
수상소감 범대순 시인 유족
수상소감 김종철 시인 유족

제3부 : 영랑시문학의 밤

사회 : 김관웅

- 김혜경 ▶ 가곡 | 유상호 ▶ 오카리나 | 인기가수 ▶ 양은주 | 고흥선 ▶ 판소리
- 박우정 ▶ 살풀이춤 | 인기가수 ▶ 정용주

제4부 : 행운권 추첨

대형김치냉장고 • 자전거 • 전자랜지 • 선풍기 등 푸짐

김영랑 시인은 일찍이 16세 때인 1919년, 향리인 전남 강진에서 3·1독립 운동을 모의하고 주도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한 바 있는 실천적인 독립투사이자 민족운동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한 저항적 현실 인식과 비판적 생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글의 문학적 훈련을 통해 민족혼과 민족정서를 계발하고 민족어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전력한 바 있는 이 땅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이기도 하다.

이 점에 비추어 그간 영광시문학상은 제회 수상자로 오늘날 남도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인 송수권 시인을 선정하여 계간『사와시학』에 수상자 특집, 송수권 집중연구를 게재한 바 있다. 제2회부터는 영광 기념사업회의 부탁으로 계간 사와시학사가 상금은 물론 상 자체를 주적으로 주관하면서 수상자로 역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이자 서정시인인 고(故) 김남주 시인을 선정하여 서울·문학의 집에서 시상하고 역시 특집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제3회 수상자로는 빼어난 순수서정시인인 전복 출신 이준관 시인을 선정·시상함으로써 그 품격과 위상을 확보하여 왔다.

이올러 제4회부터는 영광의 고향인 전남 강진군(향주총 군수와 전석홍 전남지사의) 실질적인 도움과 영광시문학회 그리고 강진 군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다시 한 번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계간 사와시학사 김재홍 교수의 제안으로 강진군과 영광 기념사업회가 제회 '영광문학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본상과 우수상 또는 특별상으로 구분하여 본상에는 상금 및 상패를 드리고 역시 계간『사와시학』에 특집으로 집중연구 되는 영예를 드리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수상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원로·중진·신진까지 폭을 넓히게 되었고 이에 걸맞게 해방 후 여성문학의 개척자인 원로 예술원 회원 김남조 시인을 본상 수상자로, 정일근 시인을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올러 5회 수상자로는 역시 해방 후 현대시의 한 정상이자 근년에 노벨상 후보자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고은 시인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영광시문학상이 이 땅 문학상의 장상의 위치로 격상됐음을 확실하게 보여 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6회 수상자로는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문학성이 높고 활동성이 두드러진 시인의 대표적인 신달자 시인을 본상으로, 그리고 광주 정신의 한 표상인 임동학 시인을 우수상으로 선정·시상하였다.

또한 7회 수상자로는 목포대 허형만 시인과 윤희 시인을, 8회 수상자로는 김지하 시인과 김신태 시인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다.

제9회 수상자로는 광주 출신의 탁월한 시인인 원로 이성부 시인을 본상에, 역시 담양 출신의 중진 시인인 최두석 시인을 우수상으로 선정·시상한 바 있으며, 제10회에는 중진 시인이자 불문학자이기도 한 전복 출신 이가림 시인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다.

제11회에는 1975년 시로 등단하고 다시 평론으로 재등단하면서 창작과 비평 활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해 온 장석주 시인이 선정되었다.

올해 제12회 수상자로는 남도의 원로시인 범대순 시인과 중진 시인인 김중철 시인이 공동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범대순 시인은 1965년 시집『흑인과고수 루이의 복』을 펴내면서 문단활동을 시작하여『연가 1·2』『이방에서 노자를 읽다』『기승전결』『백의 세계를 보는 하나의 눈』『아름다운 가난』『세기말 길들이기』『묵창서재』『파란대소』『나는 디오니소스의 거시기다』『산하』『가난에 대하여』를 펴내고 팔순을 넘긴 최근에도 연작시집『무등산을 떠난 남도의 어린 시인』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원로 시인이기도 한 분이다.

그는 동양정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서양적인 감수성 또는 모더니즘 시 방법을 절묘하게 결합함으로써 한국 현대 서정시에서 독특한 개성의 경역을 개척해 온 선구적 시인이자 젊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청년 시인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지닌다. 특히 영문학을 전공한 시인이자 시학자이고 시교육자인 범대순 시인은 남도 문단의 정로로서 고향 산천과 남도정신을 지켜 온 정신의 파수꾼이자 원로 등대수이며, 아울러 고식적인 자연 여천과 사랑 터영 및 언어미학에 치우쳐 온 감이 없지 않은 이 땅 시단에 새로운 감수성과 모더니즘적 시풍으로 젊은 기운을 불어넣고자 노력한 청년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수상작인 연작시집『무등산』은 시인에게는 고향을 지키는 상징의 산이면서 동시에 생애사의 표상이고 나아가서 민족사의 깃발로서 의미를 지닌다. '무등산'은 실제의 산이면서 시인의 전 생애를 압축 요약하며 나아가서 민족의 삶과 역사를 의미하는 거대한 영혼의 산이자 하나의 유토피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무등산'은 자연사의 표상이고 민족사의 현상이자 인류사의 한 원형상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 점에서 연작시집『무등산』은 시인의 문학적 자화상이자 민족사의 거대한 문학적 초상화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무등산'은 호남정신의 표상이자 민족혼의 횡보로서 타오르는 민족의 정신시이자 예술사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무등산'은 이 시집에 이르러 시인에게는 하나의 문학적 초상화이면서 동시에 신앙이자 종교의 경지로까지 상승돼 있다.

한편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김중철 시인은 1968년 시『재봉』으로 등단한 이래 반세기 가까이 시집『서울유서』『오늘이 그날이다』『오이도』『못에 관한 명상』『등산불 시편』『못의 귀향』등을 통해서 실존적 삶의 성찰과 존재론적 생의 인식을 신성시적 자풍으로 확대하고 고양해 온 역량 있는 중진 시인이자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에 해당한다. 특히 그는『못에 관한 명상』이래 이번 수상시집『못의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못' 하나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인간의 실존과 본질을 꿰뚫어 내면서 신의 음성으로 다가가는 '못'의 순례 또는 구도 과정을 폭넓고 깊이 있게 형상화하여 주목을 환기한다. 말하자면 '못'은 생애사 70에 근접해 가고 문해사 50년에 이르는 시인 김중철에게 과거이자 현재이고 동시에 본질이자 하나의 참회록으로서 구원의 상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못'은 김 시인에게 개인 생애사이자 세속사의 기록이고, 동시에 참회록이자 구원의 상징으로서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다. 명실상부하게 김중철은 못 철물점 주인으로 출발하여 어느새 '못의 사제'로서 신성사제로 근접해 가는 못의 시학을 완성해 냄으로써 대가의 반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범대순 시인에게 '무등산'이 실존의 거소이자 존재의 본적지이고 하나의 구원처로서 시의 고향이자 유토피아듯이, 김중철 시인에게 '못' 또한 실존의 거울이자 존재의 상징이고 하나의 구원이며 동시에 참회록으로서 공동본보를 지닌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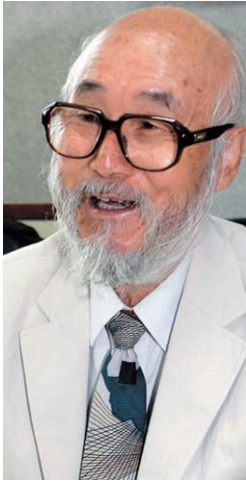
이 점에서 우리는 흔쾌하게 범대순 시인과 김중철 시인 두 분을 2014년 제12회 영광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바다. 축하를 드리며 더욱 정진을 부탁드린다.

■심사위원 **김남조**(시인·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이가림(시인·인하대 명예교수·10회 수상자)

신달자(시인·한국시인협회장·6회 수상자)

김재홍(평론가·경희대 정년연장 명예교수)



본상 수상자 시인 범대순

[공동수상]

지금 나의 작은 앞뜰에는 두 그루의 모란나무가 서있고 그 모란에서 수도 없이 예쁘고 푸르스레한 움이 트고 있다. 4월말 쯤 '찬란한 슬픔'의 꽃이 피면 다시 장관일 것이다. 그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의 뜰에 핀 모란은 올해는 나에게 더욱 뜻이 있고 기쁨을 줄 것이다. 이 모란은 25년 전에 영랑의 생가 모란 밭에서 영랑의 친척이면서 아동문학가인 김옥에 남이 옮겨다 심어놓은 것이다.

강진에는 '모란촌'이라는 동인지가 있다. 지난 연말 그 50집을 받은 적이 있다. 내 기억으로는 영랑의 친구인 차부진 선생이 80년대 초에 그 동인회를 발기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나는 그 동인지 3호에 영랑에 대한 초청 강연 내용을 실은 적이 있다. 차부진 선생이 초청한 그 강연에서 나는 영랑의 시가 불란서 상징주의 시인 폴 베르넬의 영향이 깊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것은 영랑의 시 '포켓에 손 찌르고 가운데 폴 베르넬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은 영랑의 시 속 유일한 사람 이름이다. 나리는 비, 눈물, 그리고 가담 없는 슬픔은 폴 베르넬의 시,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네 (Il pleure dans mon cœur)'를 연상시킨다.

'절망의 요란스런 울부짖음이 아니면서, 비애가운데 하나의 그윽하고 다정한 꿈의 향수, 순수한 사랑과 환상에의 동경, 소리죽여 흐느끼는 여인의 오열처럼 다소곳하고 나직한 노래' 이 말은 영랑의 시를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폴 베르넬의 시에 대한 어느 해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징주의 시의 느낌을 같이 영랑의 시적 경향이 상징주의라는 것을 미루어 살필 수 있다. 사실상 영랑은 상징주의적 영향하에 쓴 W.B. 예이츠의 두 편의 초기 시 '이느시프리의 호도'와 '천상의 천을 바라는 사람'을 번역하여 시문학지에 발표한 적이 있고 폴 베르넬의 시 '시법'에서 말하는 짧고 음악적이고 상징적이어야 한다는 시적 요구에 매우 충신했었다.

전기 차부진 선생의 말에 의하며 영랑은 시를 쓰면서 복채를 들었다 한다. 시를 읊으면서 복채를 들어 리듬을 맞추었고 리듬에 맞지 않으면 리듬에 맞는 말을 만들었다. 영랑의 시에는 의미가 없는 소리가 많다. 가령 의성음을 쓴 예로 '흐르 흐르르 흐르르르 가을 아침..... 수풀이 흐르 벌레가 흐르르르' 등이 그것이다. 음악적 효과에 치중하다 보니까 의미가 모호한 대목이 많고 모호한 음악 효과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였고 그 아름다움은 늘 우울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양상을 나는 상징주의 시인 폴 베르넬의 버릇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영랑이 전라도시인이라는 점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저런 인연을 가진 영랑에 대한 나의 사랑이 인연이 있었는지 하나의 답이 되어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더구나 심사위원장인 김남조선생이 타신 바가 있는 상이라는 점도 그렇고 이미 기운 시골시인이 지금 한국시단의 한 중심에 있는 시인 김종철 선생과 나란히 이 상을 받게 되어 그 점도 기쁘다. 지금 나는 나의 생애의 터미널을 보고 있다. 이 상은 나의 기승전결에 마무리를 짓는 다는 점에 있어서도 나에게 의미를 갖는다. 평생 시를 쓴 85의 나이에 다소 체면이 섰다는 느낌도 있다. 다시 한번 과분한 상을 주신 김남조선생 등 심사 위원과 추진위원회 김재형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본상 수상자 시인 김종철

[공동수상]

제운 밤에 기도하며

‘신은 주사위놀이를 하지 않는다’ 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주사위놀이는 어린아에게 실타이 장전된 총을 주면서 갖고 놀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역학을 유치원에서 가르치게 될 2200년까지는 주사위를 던지지 못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죽을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만의 ‘타임머신’이 필요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으로 좁혀진 나의 여명을 급히 수정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임머신 운영에는 적잖은 걱정과 난관이 따릅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타임머신으로 여행을 한 사람 중 어떤 이는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갔다가 낭패를 봤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아버지를 죽여 미리 결혼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일에는 성공했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와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행성에 복제된 과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민에 빠진 것도 바로 복제된 시간 때문입니다.

나는 빛으로 내 몸속에 전이된 암 종양을 제어했습니다. 고통도 없이 탄소 이온으로 된 중입자 치료로 처치했습니다. 1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도는 빛으로 환부를 공략해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치료한 신기술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 행성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지금쯤 복제된 시간의 행성에서는 절망에 빠진 또 다른 내가 와병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랑 시 중에는 〈제야〉가 있습니다. ‘제운 밤 촛불이 찌르르 녹아 버린다 / 못 견디게 무거운 어느 별이 떨어지는가’라는 시구는 요즘 나의 심사와 같습니다. ‘철이 기울거나 늙다’라는 뜻과 ‘참아 내거나 견뎌내기 어렵다’라는 뜻을 지닌 ‘제우다’라는 단어는 투병 중에 있던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무겁고 견디기 힘든 시련은 때로는 깊은 통찰의 계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그 절실함으로, 낮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까지 시를 쓸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님께 고개를 숙입니다. 좋은 작품으로 빛을 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회 본상** 송 수 권 시인[심사위원: 유중호, 김용직, 오세영]
- 제2회 본상**故 김 남 주 시인[심사위원: 김윤식, 송수권, 김재홍]
- 제3회 본상**이 준 관 시인[심사위원: 김윤식, 송수권, 이승원]
- 제4회 본상**김 남 조 시인[심사위원: 고 은, 송수권, 김재홍]
- 우수 상**정 일 근 시인[심사위원: 유중호, 김용직, 오세영]
- 제5회 본상**고 은 시인[심사위원: 김남조, 송수권, 김재홍]
- 1933년 전북 군산 출생
 - 1958년 「현대문학」에 시 「봄날의 말씀」등으로 추천을 받아 등단
 - 1960년 「파인캄성」 발간
 - 2004년 제4회 베를린 문학페스티벌 자문위원
 - 2007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 제6회 본상**신 달 자 시인[심사위원: 김남조, 송수권, 허형만, 이가림, 김재홍]
- 1964년 「여상」과 1972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
 - 1964년 여류 시인문학상 수상
 - 2004년 「병헌문자」, 「아버지의빛」, 「오래말하는 사이」등 11권 시집 상재
- 우수 상**임 동 확 시인[심사위원: 김남조, 송수권, 허형만, 이가림, 김재홍]
- 1980년 「광주의 비극」을 다룬 「매장시편」을 통해 시작활동 시작
 - 1992년 「운주사 가는길」시집 출간
 - 1998년 「처음 사랑을 느꼈다」시집 출간
- 제7회 본상**허 형 만 시인[심사위원: 김남조, 고 은, 신달자, 이가림, 김재홍]
- 1945년 전남 순천 출생
 - 1973년 「월간문학」에 시「예맞이」를 발표하면서 등단
 - 1990년 제5회 평화문학상 수상
 - 2003년 제 회 월간문학동리상 수상
 - 2008년 시산집「따뜻한 그리움」(시와사람사)출간.
- 우수 상**윤 효 시인[심사위원: 김남조, 고 은, 신달자, 이가림, 김재홍]
- 1956년 충남 논산 출생
 - 1984년 「현대문학」에 「혼사」, 「물결」을 발표
 - 2006년 제6회 편운문학상 우수상 수상
 - 2007년 한국 현대시 100년 「시가 다시 희망이다」전에 참가

제8회 본상

김 지하 시인 [심사위원 : 고 은, 송수권, 신달자, 김종철, 이가림]

- 1941년 전남 목포출생
- 1969년 시「황톳길」발표
- 2002년 제14회 정지용문학상
- 2005년 제10회 시와 시학상 작품상
- 2006년 제10회 만해문학상(평화부문)수상

우수상

김 선 태 시인 [심사위원 : 고 은, 송수권, 신달자, 김종철, 이가림]

- 1960년 전남 강진출생
- 1982년 고대신문 창간 35주년 기념 현성문에 시부문 당선
- 1996년 월간「현대문학」에 「비애와 무상의 시학」을 발표
- 2007년 제5회 '해지문학상' 시 부문 수상자 선정 수상작은 「수목 산수」
- 2011년 현재 목포대학교 교수

제9회 본상

이 성 부 시인

- 1942년 광주 출생
- 1960년 전남일보(현 광주일보)신춘문예시 당선으로 등단

우수상

최 두 석 시인

- 1955년 전남 담양 출생
- 1980년 「심상」에 「김통정」등을 통해 등단

제10회 본상

이 가 림 시인 [심사위원 : 김남조, 고은, 신달자, 김재홍]

- 1943년 출생
- 196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빙하기>가 당선되어 등단

제11회 본상

장석주 시인 [심사위원 : 김남조, 고은, 이가림, 이동순, 김재홍]

- 1955년 충남 논산 출생
- 1975년 「월간문학」에 등단
- 2010년 제1회 질마재문학상, 2012년 독도사랑상

특별상

전석홍 시인

- 1934년 전남 영암 출생
- 서울대 졸업
- 광주시장·전남도지사·15대 국회의원 역임
- 「현대문예」로 등단 후 3권의 시집 발간

- 1903년 1월16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에서 지주인 金鐘湖의 장남으로 출생. 본명은 允植, 유년기에는 향리에서 한문 수학
- 1915년 강진보통학교 졸업
- 1916년 김해 김씨와 결혼, 서울로 올라와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영어를 공부함
- 1917년 휘문의숙 입학, 김씨부인 사망
- 1919년 강진에서 학생운동을 모의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어 6개월간 복역
- 1920년 도입하여 청산학원 중학부에 입학, 아나키스트 박열, 시인 박용철 등과 교류함
- 1922년 1921년 귀국하였다가 재도입, 청산학원 영문과에 입학
-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
- 1925년 개성태생 안(安)귀연과 재혼
- 1930년 박용철·정지용 등과 함께 동인지 「시문학」을 간행, 그 창간호에 시 「동백넙에 빛나는 마음, 「언덕에 바로 누워」등을 발표함
- 1934년 박용철이 주관한 「문학」지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4행소곡」등의 시편을 발표
- 1935년 첫 시집「영랑시집」을 시문학사에서 간행
- 1945년 해방 후 대한독립총성회 단장 역임
- 1948년 5·10 초대 민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
- 1949년 공보처 출판국장 취임 서정주가 편집한 「영랑시선」이 중앙문화사에서 간행됨
- 1950년 6·25동란이 발발하자 미처 피난을 못한 영랑은 서울에 은신해 있었으나 서울 수복 직전 시가전때 날아온 유탄으로 복부상을 입고 9월 29일 사망함
- 1970년 광주광역시 광주공원에 영랑시비가 세워짐
- 2013년 서울휘문고등학교 명예졸업장과 자랑스런 휘문인 상 수상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아즉 봄을 기뻐니고 잇슬레요
모란이 툇툇 떠러져버린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테요
五月어느날 그하로 무덤든날
떠러져 누은 꽃뉘마져 시드러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최도 없어지고
뻐쳐오르든 내 보람 서운케 묻혀졌느니
모란이 지고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말아
三白예순날 한양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아즉 기뻐리고 잇슬레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